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제111호
2012. 5. 15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허병기 ■ 편집인 김도기, 권순형
- 주소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TEL 043-230-3413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TALIS 결과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개선 방향

김갑성(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본인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으로 지난 4년 간 다양한 교원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인사들과 교원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국제회의에서 요구하고 외국 인사들이 우리로부터 알기 원하는 한국의 교원 관련 내용 대부분이 '한국 교육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교원의 질 유지 또는 향상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즉, 한국은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교원들을 어떻게 양성하는지, 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직 교원의 질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 어떻게 연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의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객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특정 사례를 우리의 시각이나 경험에서 제공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이겠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에 제공하는 것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 객관적이고 검증된 교원 관련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자료는 우선 2002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OECD가 2005년에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교사가 중요하다(원제목 -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이고, 두 번째 자료는 2007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OECD가 2009년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구축: 첫 번째 TALIS 결과를 중심으로(원제목 - Creating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First

Results from TALIS) 일 것이다.

이상의 두 자료는 우리나라 교원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자료는 프로젝트 참여국이 작성한 국가배경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간 교원 인사정책의 국제 비교를 시도한 것이고, 두 번째 자료는 프로젝트 참여국의 교원이 직접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이 중 교원에 대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자료인 TALIS 프로젝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LIS라 명명되는 프로젝트는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의 약자로 2006년부터 2008년 1주기 조사가 끝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주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 1, 2주기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1, 2주기 공히 200개 중학교의 교장과 4,000명(학교 당 20명의 교사)의 교사가 그 대상으로 참여한다. 조사 내용은 교사의 프로필, 교사 인정, 보상 및 평가,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 교사의 수업 양태, 신념, 태도,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 풍토, 학교 문화 등이다. 1주기 조사에는 23개 OECD 가입국과 협력국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교원 관련 국제 설문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2009년에 발표된 1주기 TALIS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의 우수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즉, 우수한 교사가 많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전문성 신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을 능동적 학습 참여자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학교장들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주기 TALIS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 관련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학교 교육 방해 요인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이 지적된 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들이 투입하는 시간의 개인차가 크다는 점, 전문성 신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이 현저히 낮은 점, 그리고 교사 대상 평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점 등이었다. 교원 관련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본인은 1주기 TALIS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원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원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업무 부담 최소화를 통한 교사의 수업 준비 지원이 필요하다. TALIS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은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외 직무 부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이다. 하나의 예로 공문서 처리는 교원들의 직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고 오랫동안 개선이 요구되었던 주제이지만, 학교에서 체감할만한 업무 경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업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업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방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국가 차원의 교원직무수행기준을 개발·적

용하여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본연의 업무는 더욱 강도를 높이고 철저하게 수행하되, 비본질적 업무는 점차 제거할 수 있는 잣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에게 최소 의무 연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TALIS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교사의 연수 일수의 개인차 발생은 교사 연수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개인의 자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사에 따라서는 최소에 취득한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직무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수 참여 동기가 저조하다는 점도 원인을 제공한다. 직무연수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은 승진이나 전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최소한의 연수를 받도록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교원의 질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 없이 교원들의 연수 참여가 교사 개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져 있어 정부는 권장과 권유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연수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권장 및 권유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승진이나 전보 목적이 아니더라도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전문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ALIS 결과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교사들이 알고 싶어 하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를 다루는 연수가 충분히 개설·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연수의 질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수 기관 중심, 공급자 중심의 연수 내용, 연수 방법, 강사 선정 등 획일적 방법을 지양하고 현장 교원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연수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과연구회, 교사 동아리 등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소규모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연수과정의 교육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교원의 현장 문제 해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운영사례를 연수내용에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적극 발굴하고 풀을 형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과정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e-learning을 활용한 원격연수를 확대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카페테리아식으로 부분적 혼합 및 취사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과정 개발도 요청된다.

넷째, 학교의 학습 공동체 조직을 통해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교육에 교사가 얼마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TALIS

결과에서 참여국 중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그 결과를 교사의 배경 특성과 교사의 자기효능감 수준 간의 관련 선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사의 경우, 근무 연수, 학력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인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 분석 결과에서 볼 때, 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협력과 교사의 전문성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서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상호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공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수업에 대한 신념과 교사 자기효능감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 스스로 교수에 대한 신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교사양성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교원능력개발평가 활성화를 통한 교사 대상 평가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1964년부터 교원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불공정성, 폐쇄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단위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원하는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고, 교원정책으로 현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에 따른 다양한 평가 모형이 개발되고 그 모형에 따라 평가 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근평의 폐쇄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피 평가자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평가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초·중·고 교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근평과 근평 내 다면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일 대상에 대해 비슷한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평가하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는 교원근무성적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배점 또한 가장 높다.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태생이 근평의 장학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의 전문성 측면에서 두 가지 평가제가 연계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주기 TALIS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2011년부터 2주기 TALIS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2014년에 그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국제조사 결과는 우리의 현 상황을 비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통해 얻은 문제점을 단순히 비교 결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 논단 II

우리가 원하는 학회

김병찬(경희대학교)

I. 자부심

어느 연구 분야가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할 고유 영역, 연구 방법론, 연구할 사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한국의 교육행정학계는 한국의 교육행정이라는 고유 연구 영역과, 교육행정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1,000여명에 이르는 학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 중 하나이다. 특히 규모, 학문적 활동, 영향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교육학분야 분과학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967년 설립된 이래 45년 동안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해마다 수차례의 학술대회, 학술지를 통한 100여 편이 넘는 양질의 논문 생산, 다양한 정책개발연구 수행, 학술서적 간행 등 역동적인 학회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학회가 되어 어디 가서든 자랑스럽게 교육행정학회 회원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모두의 든든한 자산이며 자부심이다.

II. 불편한 진실

그런데 이러한 학회의 외형적인 성과와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회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고 학회에 대한 무관심이 쌓여 가고 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회가 특별히 잘 못한 것도 없는데 학회로부터 회원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언젠가부터 학회¹⁾를 주최하는 분들에게 매년 학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석할까 하는 것은 가장 큰 관심 사항이자 염려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염려는 현실로 나타나 학회 발표회장에 몇 사람 오지 않아 발표자들만의 쓸렁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쉽지 않게 목격하고 있다. 물론 참석한 숫자가 학회의 질이나 발표 논문의 수준을 결정하

1) 통상적으로 '학회'라는 용어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모임인 '학회(學會)'를 가리키기도 하고 각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본 글에서는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한다.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 또한 수준이 낮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학회를 열 때마다 참석 인원 수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 학회의 유인력이 낮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학회를 주최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리 채우기 위한 청중동원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학술대회 발표의 장을 늘리거나 다양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어 소극적이 되고, 어느 정도 검증된 명망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일 세션 위주로 학술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최근의 풍토가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술대회의 단일 발표회장에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 학술대회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수가 많아 보이는 만큼 참석한 사람들의 소외감과 군중 속의 고독감은 그만큼 커져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학회 회원들은 학술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마음은 학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왜 학술대회로부터 회원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일까? 우리 대부분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웠던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 한 번쯤은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진실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도로 정리 되는 것 같다.

첫째, 학회가 ‘그들만의 리그’ 라는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발표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분들이 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발표하는 분들은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관심과 호기심이 낮아진다. 한정된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회는 ‘그들’의 학회이지 ‘나’의 학회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학회가 ‘우리의 리그’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학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참석 인원엔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발표자나 토론자를 섭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보다는 단일 세션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를 발표자로 모시게 되는데, 따라서 좋은 분들을 발표자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분들을 발표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회 내에 좋은 발표를 해 줄 수 있는 검증된 분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최 측에서 토론자나 발표자를 섭외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같은 분들이 섭외가 된다. 결국 각 주최 측에서 학술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의 발표자들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이미 검증된 발표자들이 반복적으로 발표자로 선정되어 학술대회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그들만의 리그의 또 하나의 모습은 간혹 섭외나 주최 측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학술대회 발표자가 선정된다는 것이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적합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가끔 발표자

나 토론자로 서는데, 대체로 주최 측과의 친소관계가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누가 주최하면 누가 발표자로 선정되는지가 예상되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이 아닌 ‘나’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학문적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모인 학회나 학술대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문적 소통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회원들이 학회에서의 학문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회에서의 학문적 소통은 각자 열심히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의 논문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며 토론을 통해 학문적인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학회에서 발표자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부랴부랴 시간에 쫓겨 끝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대부분 질의응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학회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진리가 되어 버렸다. 간혹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더라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토론 과정에의 비참여가 학습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보면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연’을 듣는 ‘관객’이 된다. 좋은 발표, 좋은 강연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굳이 내가 참여하는 것은 귀찮은 일거리라는 생각이 굳어진다. 토론에 참여할 의지나 의욕도 약해지고 토론 시간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서 소통이 아닌 일방적 흐름이 학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 호기심과 학문적 소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학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신진학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학회에 대한 마음을 점점 접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특별한 역할이나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학회에 참여하는 것은 선심 쓰듯 큰 맘 먹을 때이다.

셋째, 학문적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문적 자극은 학문적인 도전의식과 치열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누구든지 학문적인 도전의식이 있으며 더 나은 논리와 더 나은 이론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자신의 논리와 이론, 자신의 연구에 대한 완전함을 위한 욕구가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 자극과 도전의식을 학회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문, 책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지적 자극과 도전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인 학회 역시 이러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이다. 그런데 학회 회원들 중 상당수가 학회를 통해 이러한 지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한다.

학술대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학자들끼리의 치열한 논쟁, 글을 통한 논쟁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한 논쟁도 토론에 참여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학문적 자극이 될 수 있다. 학술대회는 그 성격상 학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이다.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일정 부분 이러한 지적 자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도 않고 좀 더 새

로운 이론이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적 자극에 대한 기대 역시 거두어들인다.

넷째, 학회를 통한 인간적인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회가 인간적 친분을 쌓는 사교의 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회를 통한 학문적 자극과 소통 못지않게 인간적인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 학문적인 소통이나 교류의 중요한 기반이 인간적인 교류와 친밀감이기 때문이다. 학문도 인간이 하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 친밀함이 없으면 그 어떤 학문적인 교류도 기능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체로 학문적인 소통과 인간적인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회에 참석하려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나마 학회에 참석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회원들이 있다고 한다. 다른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용기를 내어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많은 참석 인원 가운데 웬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실제 학회에 참석해 보면 출신학교, 선후배, 사제지간 등 다양한 그룹들이 친밀감을 자랑하며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팀워크가 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며,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룹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소외감은 더 커져만 간다. 문제는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차츰 학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게 되어 학회 참석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나게 된다.

다섯째, 학술대회 발표나 참석의 메리트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학술대회 발표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술대회의 발표가 그렇게 큰 영예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연구 성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술대회 참여나 발표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행정학회 회원님들이 대체로 너무 바쁘다. 교육행정학회 회원 중에 바쁘지 않은 회원은 없는 것 같다. 교육행정학회 회원들은 학회의 학술 활동, 각종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각자 소속한 기관에서도 대체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행정학이라는 분야는 특성 상 학교 및 기관 운영의 거의 모든 분야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행정 전공자인 회원님들은 늘 쫓기면서 바쁘게 산다. 이렇게 바쁜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회를 통해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학회가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Ⅲ. 도전

위에서 이야기한 불편한 진실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들도 아니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올 해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하

지만 학술대회를 주관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그냥 있을 수만은 없고 학술대회 변화를 위한 작은 시늬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몇 가지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발표나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한다. 학술대회에 본인이 참여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은 진리인 것 같다. 적극 참여하면 그만큼 많이 얻게 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얻는 것도 적다. 따라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학술대회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발표나 토론이다. 이 발표나 토론의 장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올 학술대회의 중요한 방향이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의 리그'가 되게 하려고 한다. 명망 있는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아울러 다양한 시도와 연구들을 하고 있는 학자나 연구자들, 그리고 신진학자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학술대회 발표가 이미 검증된 훌륭한 분들만 발표하는 장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모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매 학술대회 때마다 기획 세션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자유 세션도 다양하게 만들어 참신한 도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 학자들과 신진학자들 사이의 생산적 긴장관계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둘째, 학문적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보려고 한다. 학문적 소통은 학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반이다. 학술대회에서 소통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선 학술대회 발표회 장에서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려 한다. 학술대회 발표회장에서는 좋은 논문들이 발표 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며, 많은 질의응답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발표회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토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물론 발표를 맡으신 분들은 질문이 많아지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은 기꺼이 수용해 주시리라 믿는다. 특히 토론과 관련하여 토론자뿐만 아니라 청중으로 참여한 분들에게도 가능한 한 많은 참여기회를 드리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원로 학자에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해 본다.

셋째, 학문적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학회가 본질적으로 부여받은 사명 중의 하나는 학문적 담론 형성이다. 학문적 담론은 좀 더 체계화되고 정합성 있는 학문적 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담론은 형성뿐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일은 학회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학 분야 담론 형성의 중추이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시범적으로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팀을 꾸려 운영해 보려고 한다. 한국의 교육행정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이 이슈를 가지고 1년 정도 학회 차원의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이론화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교육행정학회가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잘 읽어 내고 이를 통해 교육행정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담론화하여 교육행

정 분야 및 교육계의 미래 변화를 선도해 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한다.

넷째,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우리 학회의 미래는 학문후속 세대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학문후속세대들이 준비되는 만큼 우리 학회의 미래는 결정된다. 따라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이들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장들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런데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장에서는 기존 학자나 연구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학문후속 세대인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서로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기존 학자 및 선배 학자들의 안내는 이들이 배우고 발전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학자나 연구자들이 학문후속 세대를 위한 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학술대회가 학문적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보고자 한다. 축제는 뭔가 재미있고 얻는 것이 있는 장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학술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추계학술대회의 경우에는 교육행정학계의 핵심적인 현안 이슈들을 진지하게 다뤄보는 기획발표의 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장, 그리고 기존의 여러 정책연구 및 현안연구들 중에서 학회 차원의 검토와 공유가 필요한 연구들을 내어 놓고 함께 논의하는 Roundtable 장, 연구방법론뿐만 아니라 화제가 되었던 논문이나 책, 새로운 이론 등을 함께 배워보는 Workshop 장 등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 기존의 연구자나 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신진학자나 대학원생들은 풍성한 배울 거리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참여이고 둘째도 참여이며 셋째도 참여이다. 회원님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낼 수가 없다.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학술대회가 형식화되고 학문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원님들의 참여 밖에 없는 것 같아 감히 말씀을 드린다. 참여를 기반으로 학문적 소통과 축제의 장을 만드는 선순환적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올 교육행정학회는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외형이나 형식이 아니라 학술단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회를 향한 작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라인의 발달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아도 연구자로서 필요한 것을 거의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라인 시대가 되었어도 학자들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믿기에,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을 믿기에 학술대회를 붙들 용기를 내어 본다. 올 해의 노력들이 우리가 원하는 학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작은 벽돌 하나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I 논단 II

학회지 발간체계 변화와 학문적 자세에 대한 단상

박선형(동국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창립 45주년과 ‘교육행정학연구’ 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이다. 공자의 말씀에 비유한다면 학회는 이미 시물의 이치를 터득한 상태에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학회지 역시 모든 기초를 확립하는 ‘이립(而立)’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선도한 45년의 학회발전 역사 속에서 ‘교육행정학연구’는 학회 구성원의 연구노력과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결집하는 대표적인 국내학회지로 성장하였다. 1,000여명에 이르는 학회구성원의 교육활동과 30년간의 학회지 출간을 통해서 교육행정학은 교육 전 영역에 걸쳐 즉, 교육대상별(초·중·고등교육 등)·행정단위별(중앙·지방·단위학교교육행정)·행정기능별(시설, 재정, 인사, 조직, 정책 등)로 다양한 연구업적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학계 내에서 선진적인 학문적 위상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회의 외형적 규모 확대와 학문성장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이론체계 확립 미흡, 교육현장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실천 해결력 부족, 교육행정이론과 실제의 균형적 조화 결여” 등은 교육행정학의 학문체계와 이론발달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당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학의 이론적 토대와 지식기반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학회 차원의 전방위적 개선 노력이 현재적 시점과 미래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 개별 학자의 차원에서는 학문탐구를 연구관심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하는 학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야 한다. 학문의 정체성과 학술활동의 체계성을 대변하는 학회지 또한 구성체계와 출간방향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보다 전향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회지 출간 30주년을 맞이해서 학문의 정체성과 체계성이 더욱 심화 확립될 수 있는 미래적 발전방향이 구안 제시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교육행정학의 학문발달과 자생적 이론체계 확립은 다차원적 접근 즉, 학회연구 차원, 개별학자 차원, 학술지 차원의 협동적 연계 노력이 체계적으로 실행될 때에 한해서 그 가능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중에서 학회지 출간과 개별 학자 차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학회지 구성 체계 변화와 편집 규정 개선

우선 학회지 출간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도입될 표지 디자인 변경, 내용구성 체계 및 편집규정 개선의 가시적 변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학회지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표지 디자인의 총체적 변화이다. 그동안 학회지는 학회의 역동적 발전과 학문의 정체성을 표방하기에는 다소 진부한(?)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옅은 노란색 바탕에 한문으로 표기된 기존의 학회지 표지는 마치 일본이나 중국 학술지를 연상하게 하였으며, 학회지의 영문명(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은 외국 유명영문 저널(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과 유사하여 한국교육행정학의 정체성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30권 1호부터 학회지의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으로, 한문표기는 한글전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학회지의 표지 색깔 역시 가시성을 명료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짙은 노란색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둘째, 최근 학문연구 동향과 이론발달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학회지 특별기고 섹션 운영이다. 특별기고는 '서평(Book Review)' 과 '논점과 전망(Perspective)' 의 두 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국내 학자에게, 후자는 외국 저명학자에게 해당 논문을 위촉할 예정이다. 2006년 허병기 학회지 편집위원장 당시 개정된 학회지 편집·발간 규정 제1조는 “교육행정학연구지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주로 게재하되, 논문비평, 서평, 학술단상 등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동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회지는 학회 구성원의 투고논문을 중심으로 발간되어 왔다. 교육행정학연구 30권 1호의 서평은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의 선도가인 Andy Hargreaves 교수의 최신 저서에 대한 정바울 박사의 분석 논문으로, 논점과 전망은 교육행정이론 발달의 과학철학적 연원을 구명하고 있는 Colin Evers(University of New South Wales)/Gabriele Lakomski(University of Melbourne) 교수의 특별기고 논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호주학자인 Evers와 Lakomski 교수는 교육행정이론의 인식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구명한 “Know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1991)”, “Explor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1996)”, “Do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2000)”의 삼부작 저서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학회지의 특별기고 섹션 운영은 ‘교육행정학연구’의 인식론적 지평과 내용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발전 방향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편집규정 개선이다. 최근 각 대학은 외부 대학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업적 규정과 신입교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교원인사행정 관련 여건 변화는 상이한 학문배경을 가진 다양한 논문이 학회지에 투고되는 현상과 심사논문

2)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허병기 학회장님의 혁신적 지도성과 학회편집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협동적으로 구안되었다.

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30권 1호의 경우 총 44편의 논문이 투고되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친 바 있다. 통상 매해 첫 호의 투고논문 숫자가 30편이 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44편의 논문은 상당한 수준의 양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학회지 투고논문의 증가는 학회의 외형적 성장과 학문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판단 기준으로서 일견 환영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출간형태가 외적 성장에 상응하는 학문적 정체성과 학문연구 활동의 내실화를 달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타 학문분야 논문의 경우 투고논문의 내용체계와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심사인력 풀 확보의 난점이 제기된다. 또한 국내·외 영어전용 학술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외국 박사학위논문을 단순 축약한 영문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일부 불편한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 박사학위논문은 외국인이 작성한 외국어논문 또는 한국인 투고자가 작성한 외국어논문과는 다르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 장기간의 외유 속에서 형설지공의 결과로 획득한 외국학위논문은 한글로 전환되어 더 많은 독자에게 전달될 때에 한해서 한국교육행정학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학회지 편집규정은 논문작성 언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투고논문의 교육행정학분야 적합성 여부 판별과 외국학위논문의 한글논문 전환 투고 등의 편집규정 개선이 향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외국어논문의 경우 심사비의 차등화, 학회지의 On-line Journal 체제 도입, 학회지의 연간 발간 횟수 확대, 2014년 학술지 평가시 학문분야별 핵심저널 선정에 대비하는 사전준비 체계 확립 등의 문제 역시 '교육행정학연구'의 미래적 발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학회 구성원 모두의 집단적 지혜를 구안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Ⅲ. 학자의 학문적 자세

학회지 출간에 대한 개별 학자의 학문적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행동과학적 시각에서 교육행정학의 이론체계를 본격적으로 재확립한 이론화운동(The Theory Movement)은 1957년에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이론화운동 이후의 반세기가 조금 넘는 교육행정학의 발전 역사를 감안할 때 아시아 후발국가의 한 학회로서 교육행정학회지를 30년간 출간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작지 않은 학문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³⁾

한국교육행정학 연구가 선진적인 이론체계 확립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상응하는 학문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성찰적 고민과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착적인 이론화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학회의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교수·연구 집단의 학문적 자세(scholarship)가 선행적으로 정립될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 학문공동체의 변형은

3) 교육행정학의 3대 국제학술지를 살펴보면 2012년을 맞이하여 호주의 JEA(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50년, 미국의 EAQ(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는 48년, 영국의 EMA&L(Education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Leadership; EMA에서 추후 변경됨)은 40년의 창간 역사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개별 학자의 진리탐구에 대한 열정과 지적 호기심 및 부단한 도전정신이 반영된 연구 결과물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자의 본분과 기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쉽사리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명료한 지향점을 상실한 논의는 공리공론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카네기재단 회장직을 16년간(1979-1995) 역임하였던 Ernest Boyer의 견해는 학문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학자의 본분 확립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는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1990)라는 저서에서 학자의 자세는 연구(research)라는 한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발견(discovery)·통합(integration)·적용(application)·교수(teaching)라는 네 가지 영역의 상호연계적 교육활동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⁴⁾ Boyer에 따르면 발견은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독창적 접근과 창조적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연구활동과 유사한 영역이다. 한편, 통합은 전통적 연구를 확대한 개념으로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기존 학문체계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학자의 역할을 지칭한다. 다양한 학문배경에 근거한 지식융합적 연구결과물은 통합활동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적용은 연구결과를 학술활동에만 제한하지 않은 채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창조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교수활동은 학생에게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확장함으로써 학문공동체 번영에 필요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Boyer가 주창한 상호연계적 차원의 네 가지 학자적 자세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반성적 성찰과 개별 학자의 실현은 과거 학술대회에서 한국교육행정학 발달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공통 문제점 즉, “현안중심의 정책연구 강조, 체계적인 이론체계 구축 미흡, 확대재생산적인 연구결과물 양산, 교육행정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부족, 학문발달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복적 연구주제,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학문후속세대의 적극적 참여 부족 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년간의 학회지 출간은 원로교수님들의 깊이있는 연륜과 선배·중진·소장학자들의 뜨거운 학문적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학회의 위상과 연구물 축적 등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행정학의 지식 기반과 학문성장을 위한 전문인력풀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창의시대를 선도하는 이론형성과 혁신적인 지식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학연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보다 새로운 학문적 전통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교육행정학회 구성원 모두가 진리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발견·통합·적용·교수활동”에 매진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4) Boyer의 학자의 자세와 역할(Scholarship)에 대한 논의는 추후 “Scholarship Assessed: Evaluation of the Professoriate(Glassick, Huber and Maeroff, 1997)”에 의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완된 바 있다. 관련내용은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서 참여하여 집필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모형 개발(박남기 외, 2006)”의 pp. 19-24 참조

학회 활동 안내

학술대회

◆ 제164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12년 5월 12일(토) 09:30 - 17:3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103, 401, 404호
- 주제: 한국 학교현실에 대한 교육행정학적 조망

학회 회의 개최

◆ 제1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1월 6일(목) 13:30
- 장소: 티원(서울역)
- 안건: 2012년도 학술대회 초안 기획

◆ 제2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2월 24일(금) 16:00
- 장소: 그릴(서울역)
- 안건: 2012년도 학술대회 주제 논의

◆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3월 24일(금) 17:00
- 장소: 한화호텔앤드리
- 안건: 학술지 발간규정 개정안 논의 및 학회지 디자인 개선 논의

◆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2년 5월 12일(토) 17:30
- 장소: 서울교대 인문관
- 안건: 학회 회칙 및 학술지 발간규정 심의 및 의결

◆ 제1차 정기 이사회

- 일시: 2012년 2월 8일(목) 11:30
- 장소: 후젠무이(서울교대)
- 안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학회 운영 보고

◆ 제3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3월 9일(금) 17:00
- 장소: 그릴(서울역)
- 안건: 제164차 춘계학술대회 논의

◆ 임시 이사회

- 일시: 2012년 5월 12일(토) 12:30
- 장소: 두부촌(서울교대)
- 안건: 임시 총회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승인

주요 소식

◆ 제164차 춘계학술대회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 참여

‘한국 학교현실에 대한 교육행정학적 조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4차 춘계학술대회가 성료되었다. 지난 5월 12일(토) 09:30분부터 17:30분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학술대회의 각 세션 진행에 앞서 정영수 교수(충북대학교)가 ‘한국의 학교문제와 교육행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기존 학술대회 진행과는 달리 ‘기획주제세션’, ‘자유주제 세션’, ‘신진학자 세션’, ‘학문후속세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기조강연자 1명, 발표자 22명, 토론자 4명이 참가하였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의 토론과 청중토론이 진행되었고, 자유주제·신진학자·학문후속세대 세션에서는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청중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후 4시 10분부터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김성열 교수(경남대)가 각 세션별 사회자들과 함께 각 세션장에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조강연 발표 정영수 교수



‘학교 운영의 현실과 발전과제’ 발표와 토론(기획주제)
신상명 교수(발표자), 김이경 교수(사회자),
한유경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DEA를 활용한 대학의 학과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주제 발표(자유주제 세션)
이정열 교수(중부대)



‘학교장의 문화적 리더십과 상징’
주제 발표(신진학자 세션) 이정화 박사



김재웅 교수(기획세션 오후 사회자), 변기용 교수(자유세션 1 사회자),
김이경 교수(기획세션 오전 사회자), 김성열 교수(좌장), 염민호 교수
(신진학자 세션 세 사회자), 전제상 교수(학문후속세대 세션 사회자),
유길한 교수(자유주제 세션 2 사회자) (좌측부터)

학회 회원 동향

- 이수정(단국대) : SSCI 학회지로서,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하는 Sociology of Education, 84(3), p. 212-224 'The Impact of Prestige Orientation on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논문 게재
- 주철안(부산대) : 2011년 11월 1일자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취임
- 오영재(고려대) : 2012년 2월 1일자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취임
- 염민호(전남대) : 전남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임명
- 이인회(제주대) : 영동대학교 교수에서 제주대학교 교수로 임용
- 전제상(공주교대) : 경주대학교 교수에서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임용
- 박상규(강원대)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을 겸임발령
- 정대범(진주보건대) : 진주보건대학교 기획대외협력처장 임명
- 정재균(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전라북도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위촉
- 김영덕(강원대) : 2012년 2월 강원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 취득
- 유광호(정명정보고) : 승의여고 교감에서 정명정보고 교장 승진발령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 원고접수: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30권 (2012년)	1호	2월 28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0일	12월 31일

-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 2호부터 논문 본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 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적'으로 판정되면 논문심사 진행, '부'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 및 심사 진행 불가)
-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 이를 기준으로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 심사료 : 100,000원(외국어 논문 심사료 150,000원)
-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게재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 신한 110-351-207590 예금주: 허병기(교육행정학연구)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12년 1월 1일 - 2012년 4월 30일)

- 개인회원: 강명희, 고 흥, 광창신, 권지영, 김기수, 김동원, 김수진, 김안나, 김재희, 김중환, 김지선, 김현준, 노영자, 노현희, 문영빛, 박시남, 박제명, 박현정, 서자영, 심연식, 심현숙, 안선희, 양은주, 오지민, 이상돈, 이주연, 이준호, 이창열, 이현주, 정문성, 정바울, 천무영, 최보은, 최상배, 최은수, 최희정, 황영준, 황인수(이상 38명)

◆ 연회비 납입현황(2012년 1월 1일 - 2012년 4월 30일)

- 개인회원: 강석봉, 고 전, 광상기, 김덕근, 김도기, 김명수, 김세호, 김순남, 남수경, 박소영, 박수정, 박승란, 변기용, 신재흡, 염민호, 오대수, 원유옥, 유길한, 유영설, 유평수, 이상민, 이승일, 이지영, 이필남, 정성수, 정재균, 정희욱, 하봉운, 한신일, 배상훈, 김갑성, 김민조, 박진은, 배은주, 이상희, 정대범, 송란호, 조범진, 이동선, 김용수, 김가인(이상 40명)
- 기관회원: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전남교육과학연구원, 한신대학교 도서관(총 5기관)

- ※ 정보가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회칙 및 학술지 발간규정 개정

학회 회칙과 학술지 편집·발간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학회회칙은 총무간사(010-2956-0863)으로 학술지 발간규정은 편집간사(010-8859-8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회칙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010. 4. 24 제14차 개정	2012. 5. 12 제15차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와의 관계에서는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와의 관계에서는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부분개정, 2012. 05.12)	학회 영문 명칭 개정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는 자로 학회장의 승인을 거친 자(일부 개정 2012. 5. 12)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학생회원의 경우 전일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부분 신설, 2012. 5. 12). ③ 기관회원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회원 자격 요건 완화, 학생회원 자격 요건 입증관련 사항 삽입

<p>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만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p>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 일반회원은 아래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가지며 학생회원은 3,4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u>본 학회 회원 권리 유지기간은 회원 가입 시점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분 신설 2012. 5. 12).</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p>회원 자격 유지기간 명시</p>
<p>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p>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유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p>② 위 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으로 인한 미납의 경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u>이 경우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와 관련한 자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부분신설 2012. 5. 12).</u></p>	<p>회원의 자격 회복 규정 개정 및 회복 시 권리 의무사항의 효력 규정 신설</p>
<p>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제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u>이사회</u>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p>	<p>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① 제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p> <p>② 제9조 제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u>학회</u>장의 확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 5. 12).</p> <p>③ <u>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회복에 따른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는 회복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2. 5. 12).</u></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교육학회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교육학회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u>제4조(제15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5차 개정안은 201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승인 2012. 5. 12).</u></p>	

[학회지 편집 · 발간 규정]

- 개정 주요 내용

1) 외국어 논문 제한(제3조의2 에 언어 관련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011. 05. 28. 제11차 개정	2012. 05. 12. 제12차 개정	
제3조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한다.	제3조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한다. 제3조의2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뢰로 외국인이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 외국인이 외국어로 투고한 원고 및 한국인 투고자가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이 아닌 외국어 논문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교육행정 발전과 연구자의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박사 학위논문은 한글로 전환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음.

2) 교육행정 분야 적합성 여부 판정(제6조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011. 05. 28. 제11차 개정	2012. 05. 12. 제12차 개정	
제6조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교육행정학연구」게재논문 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심사할 경우 게재한다.	제6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교육행정학연구」게재논문 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심사할 경우 게재한다. ② 편집위원 중 1인 이상이 투고 논문의 교육행정 분야 적합성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전원에게 투고 논문을 회람하여 편집위원 과반수의 판단에 따른다. 교육행정 분야 적합성이 부인되는 경우, 투고 논문은 심사하지 않으며, 심사료는 반환한다.	투고논문의 교육행정학 학문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필터링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3) 외국어논문 심사비 5만원 인상(제9조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011. 05. 28. 제11차 개정	2012. 05. 12. 제12차 개정	
제9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10만원을 학회에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40만원,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원고분량은 20쪽을 기준쪽수로 하여 30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쪽수로부터 1쪽 초과시 쪽당 3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납부한다.	제9조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10만원을 학회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단, <u>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심사료는 15만원으로 한다.</u> ②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40만원,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③ 원고 분량은 20쪽을 기준 쪽 수로 하여 30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 쪽 수로부터 1쪽 초과시 쪽당 3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외국어 논문 심사의 전문성과 난해성 고려

◆ 학회 영문 명칭 및 학술지 영문 명칭 변경

- 본 학회 영문 명칭과 학술지 영문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 명칭)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학술지 영문명칭)

-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ksseal@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비가 2년 이상 연체된 회원들은 학회 홈페이지 자료 접근 제한되며 회원으로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회복은 학회 회칙 제9조 내지 제10조를 참조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010-2956-0863 총무간사).

※ 연회비 안내

입회비 10,000원,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회비납부: 110-351-208727(신한), 예금주 : 허병기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E-Mail : ksseal@hanmail.net
- 전화번호 : 043-230-3413
- 회 장 : 허병기(010-6268-6042)
- 부회장 : 이윤식(010-3324-8166)
- 사무국 : 김도기 사무국장(010-4708-0174)
권순형 총무간사(010-2956-0863)
문영빛 편집간사(010-8859-8371)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